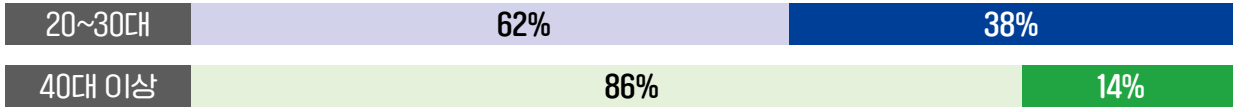


# 주 4일 근무 VS 한 달 방학, 나의 선택은?

일주일 중 하루 더 쉬는 게 좋을까, 한 달 몰아서 쉬는 게 좋을까? 우리 회사 20~30대 그리고 40대 이상 임직원의 생각을 알아본다.

평소 워라밸이 중요, 주 4일 근무 VS 한 번에 길게 쉬기, 한 달 방학



주 4일 근무는 스트레스와 몸을 관리하며 다음 업무를 준비하는 훌륭한 근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.

지금보다 하루만 더 회사를 안 가면... 천국, 그 자체죠!

한 번에 길게 쉬면 그만큼 복귀 후 타격이 클 것 같아요. 잔잔하고 길게 규칙적으로 쉬는 게 생체 리듬에도 좋겠죠?

매일 늦게까지 일하면서 한 달 쉬는 것보다 평소에 자주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

만약 내 카운트 파트너가 한 달째 휴가 중이라면???

직장인이 길게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.

잠깐이겠지만 평소와는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.

생각만으로도 행복, 진정한 리프레시!

쉴 땐 제대로 쉬고, 일할 땐 제대로 일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죠!

부모님과 여행, 자격증 취득, 취미 생활 등 평소 관심 있거나 미뤘었던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잖아요.

## 세대차이 극복 TIP

각 세대 간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.



〈센 세대, 긴 세대, 신세대 3세대 전쟁과 평화〉(김성희 지음, 쌤앤파커스 펴냄)

베이비부머 세대, X세대, MZ세대. 뻗속부터 다른 이들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책은 세대 별 경험과 자라온 환경을 보여주고 각 세대의 속마음을 속 시원히 이야기해 준다. 일과 삶의 의미는 다르지만 갈등과 미움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.



〈따뜻한 아이스 라떼 한 잔〉(권영애 지음, 펍스트북 펴냄)

저자는 지난 40년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의 세대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진심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.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의 지혜와 연륜, 모든 세대가 화합하고 갈등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.